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주현절 후 제4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43.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주님, 산 자의 땅에서 주님을 찬미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요? 어둠의 심연을 지날 때에도 우리는 빛이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괴롭고 속상한 일들이 없지 않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하루 하루 우리가 걷는 길이 예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한 구도의 과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했습니다. 능력과 덕을 겸비한 충성스런 일군이 되어 주님의 꿈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불의에는 저항하되 약한 이들과는 사랑으로 연대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가 산 위에 있는 마을처럼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벰전5:6-7 인도자

♠ 교 독 문 8. 시편19편 다함께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I. 김태환 선생 II. 방문성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송 463. 험한 시험 물속에서 다함께

성경봉독 I. 요11:47-52 인도자

II. 욥23:1-10 최성애 집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먹고 살자구요? 이성운전도사

II. 어디 계십니까?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401.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69. 나 가진 모든 것(1,2)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때때로 거센 파도가 우리를 삼키려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기어이 소원의 항구에 이를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전진하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작은 바람 앞에서도 부평초처럼 흔들리던 우리들이 오나,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이제 두려움 없이 나아갑니다. 삶에 지친 이들을 위로하고, 웃음을 잃은 이들의 얼굴에 웃음을 되돌려주도록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아멘.

♠ 결단의 찬양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다함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신약성서 맥 잡기(2)/김기석 목사	성서의 평화(18)/김기석 목사
기도 : 노순옥 권사	기도 : 한선희 집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곽권희 집사 장영숙 전도사	황경순 집사 김용진 권사

1월	영접위원	조병무 박창운	고사일 곽혜자	허정윤 최영선
	헌금위원	김철수 김준호	하현철 구명자	안정숙 박홍재

주(主)와 종(從)의 전환

구약성서에 [욥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구약성서란 기본적으로 유대교의 성전(聖典)으로 그리스도교에서는 신약성서를 이해하기 위해 이것을 유대교에서 빌리고 있는 셈이지요. 이 [욥기]라는 책이 어떤 내용의 책이냐 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곳에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부자이고 아이들도 많아서 모든 게 잘 되어갔습니다. 그런 욥이 어느 날 아이들을 잃고 가진 것도 잃으며 자기는 병이 들어 대단한 고통 속에 놓이게 됩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올바른 일을 해왔다. 열심히 기도도 했고 아무 것도 부끄럽지 않은 생활을 했다. 그런데 어째서 아이들은 죽고 재산을 잃으며 자기마저 병에 걸리는 처참한 지경에 빠졌는가.” 이런 말이 욥의 입을 통해 뇌어집니다. 이것은 그때까지의 유대교의 응보(應報)사상에 대한 욥기 저자의 하나의 강렬한 의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욥에게 친구들이 와서 “그런 모독적인 말을 하지 말아라. 네가 그런 병에 걸리고 불행하게 된 것은 어디선가 나쁜 일을 했었기 때문일 것이니 아무튼 회개해라. 하나님은 회개하면 어떻게 보살피 주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전통적인 응보사상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다. 나는 절대로 나쁜 짓은 하지 않았다. 만일 그런 하나님이 라면 법정에 나가서 다투어도 좋다”는 겁니다. 대단히 화가 나서 날뛰었던 것이지요. 너무 날뛰므로 모두 그를 싫어하여 친구마저 떠나갔으므로 욥은 혼자서 병중에 신음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지요. 욥에게 말합니다. 구약성서의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욥을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너는 나와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등 건방진 소리를 하고 있지만, 너는 대체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 알고 있는가. 바다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는가.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지켜본 일이 있는가 하시며 건방진 소리를 하지 말라고 대단히 엄한 소리로 따집니다. 그때 욥은 하나님의 무서운 목소리에 거꾸러지고 맙니다. 그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읽고 있는 욥기에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있는데, 이것은 욥기를 읽은 후세 사람이 이래서는 욥이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상을 내려주셔서 다시 돈을 벌고 아이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이미 있었던 옛 이야기에 덧붙였다는 점이지요. 그러나 나도, 여러 사람이 말하듯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옳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행복했고 돈도 벌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도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옳은 괴로워하고 그 고통 속에서 처음으로 참된 의미로 하나님을 만나서 거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종(從)이고 하나님이 주(主)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것은 없다, 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자기가 주(主)인 세계에서 종(從)이 되었을 때의 즐거움이라고 할까, 안도감이라고 할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맡아 있는 모든 가치를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혼자 알몸으로 태어났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배가 정확하게 닳을 바위 위에 내리고 있는 것 같은 안도감이라고 말할까요. 그래도 폭풍이 불면 배는 좌우로 흔들리게 마련이므로 아무리 신앙이 깊은 사람이라도 부모가 죽으면 슬프고 누구와 헤어지는 것은 서운하며, 역시 즐거운 생활을 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다른 점은 한없이 배가 파도에 밀려서 떠내려가는 일은 결코 없다는 일종의 안도감이라고 할까, 마음속의 평화라고 할까, 뭐라고 말로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지만 관점의 전환으로 얻어지는 것은 그와 같은 안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 둘이 싸우기도 하고 소리지르기도 하며 또는 우는 등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 곁에 어머니가 있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안도감이라고 할까요? 어머니가 없다면 아이들은 불안해서 싸움마저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어머니의 눈길이 닿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들의 편안하고 생생한 시선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주(主)된 것이 아니라 주도니 분이 항상 감싸주고 계시다는 그런 느낌일까요? 이것이 역시 종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일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

- 이해인

적어도 하루에
여섯 번은 감사하자고
예쁜 공책에 적었다

하늘을 보는 것
바다를 보는 것
숲을 보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기쁨이라고
그래서 새롭게/노래하자고.....

먼 길을 함께 갈 벗이 있음은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서 감사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픔 중에도 감사하자고
그러면 다시 새 힘이 생긴다고
내 마음의 공책에
오늘도 다시 쓴다

◇ 주님의 교회를 설기는 이들 ◇

원로목사 : 박정오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찬양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관리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정복순 조관행 홍선희 임보람 고광승 이춘희 권미숙 김민주 박애순
임승동 백혜숙 임고은 김금순

월정헌금:

권혁순 박혜경 권미숙 최윤희 김승현 김수진

감사헌금:

문금석 김종철 황미진 김창경 박시내 김금순 최채수 김인걸 문영혜
권미숙 박병선 박병구 송임희 오진훈 노순옥

생일감사헌금: 곽혜자 최희영 권예원 권나영

100주년 기념 감사헌금:

김철수 최숙화 김정길 임승동 백혜숙 홍순구 안홍숙 임원민 임수연
(누계- 27,550,000원)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침	연 합 속 회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레		
안 디 옥	임 정 자	이 춘 희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갈 릴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베 다 니	박 흥 재	곽 권 희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에 베 소	이 순 정	장 혜 숙		
빌 립 보	구 성 실	박 현 우		
가버나움	구 명 자	안 홍 숙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갈라디아	송 양 진	유 경 순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임원회** : 2부 예배 후에 교육관에서 1월 정기 임원회가 있습니다. 집사 이상 임원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 **중고등부 자체 예배** : 11시에 청년부실에서 드립니다.
3. **오후집회** : <신약성서의 맥 잡기>라는 주제로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4. **100주년 준비모임** : 각 사업 분과의 책임을 맡은 이들은 오늘 오후 집회 후에 중고등부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5. **청년모임** : 오후 1시 30분에 청년부실에서 모입니다. 집회 후에 장애인 자립 지원 센터 '프렌드 케어'를 방문합니다.
6. **연합속회** : 2월 2일(금) 오전 11시 교회에서 모입니다.
예배인도 - 고린도 속, 식사준비 - 가버나움 속
속장 인도자 교육이 10시 30분에 중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7. **월례회** : 다음 주일 오후 시간은 선교회 월례회로 모입니다. 1시 20분부터 찬양을 시작합니다. 선교회원들은 모두 동참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8. **중고등부 수련회** : 2월 1일부터 3일까지 양평에 있는 그린 캐슬에서 열립니다.
9. **졸업예배** : 다음 주일 11시에 교육관에서 전교회학교 연합 졸업예배를 드립니다. 9시 30분 1부 예배는 없습니다.
10. **신앙실천** :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승용차를 타지 않거나, 먼 거리가 아니면 걸어다니십시오. 주님을 모시고 함께 걷는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 식당 봉사 : 갈라디아 속 * 2월 3일 토요 주방 봉사: 김필순, 조병주
* 캄보디아 우물 기부 : 배근수(생일) *새교우 : 김정애 (3여선교회)

2월	영접	한완식 이호원 김 극 박홍재 백혜숙 권미정
	헌금	조병무 김용길 김훈동 배삼순 박효선 백혜숙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